

# 日 의원 195명 야스쿠니 참배

## 다케베 자민당 간사장 “일본인으로서 당연”... 주변국 비난 일축

### 中, 日 외상방문 거부

한국과 중국의 강한 반발과 자국 정치권 및 시민단체들의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가 17일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한 데 이어 하루만인 18일 오전 195명의 여야 국회의원(대리인 94명 포함)들도 보란듯이 집단 참배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와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강한 어조로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냈으며, 중국 정부는 일본 외상의 중국방문을 거부하는 등 응징에 나섰다.

18일 신사참배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모두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으로 다케베 쓰토무(武部勤) 자민당 간사장을 비롯 자민당 93명, 민주당 3명, 국민신당 1명 등 총 101명이 직접 신사를 찾았다.

참배자에는 지난달 중의원 선거에서 첫 당선된 초선의원 25명이 포함됐으나 현직 각료는 없었다. 다케베 간사장은 참배 직후 “앞으로도 평화를 확실히 지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맹세를 거듭 다짐했다”며 “참배는 일본인으로서 당연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구라타 마사토시 자민당 의원은



다케베 쓰토무(武部勤) 당 간사장(오른쪽에서 3번째)이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18일 도쿄에서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이곳을 찾은 의원들은 모두 종전 이후 60년간 우리 나라가 어떻게 평화를 성취했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심사숙고했다. 각국은 저마다의 입장이 있다”고 말해 신사 참배에 대한 주변국들의 비판을 일축했다.

앞서 17일에는 고이즈미 총리가 한국과 중국의 반대 및 사전경고에도

불구하고 A급 전범의 위패가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해 국내외의 반발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내 책임있는 지도자들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중단을 성명으로 촉구한 지 하루 만에 일본 여야 의원들이 집단 참배를 강행한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주변국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본 정치인들의 행태에 기가 막힌다”며 “더는 할 말이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네티즌들은 각종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강한 어조로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으며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자유게시판에도 규탄의 글이 쇄도했다. /도쿄=연합뉴스

# 中, 反日감정 다시 고조 ‘분노의 목소리’ “대화로 풀어라”

## 美, 중립적 입장견지

중국 내의 반일(反日) 정서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에 항의하는 네티즌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인터넷 사이트를 점령하는 가운데 일부에선 집단 시위를 벌이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인터넷 사이트 소후닷컴(Sohu.com) 게시판에는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바라보는 중국인들의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중국인들은 기억하자. 일본의 만행을 이라는 다소 평범한 글에서부터 ‘우리는 믿는다. 언젠가 일본을 멸망시킬 것. 이는 시간문제’라는 과격

한 선동성 문장에 이르기까지 네티즌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죽이지는 섬뜩한 글도 다수 있었고, ‘신저우(神舟)의 신화 만세’라는 글이 올라 선저우 6호의 성공적인 우주비행으로 중국인들의 민족적 자존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글도 있었다.”

특히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젊은 이들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날 중국 전역에서 벌어진 반일(反日)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주요 대학의 학생지도부는 대형 시위 가능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하이(上海) 푸단(復旦)대학의 한 학생은 “일본이 잇을 만하면 도발

하는 그 병을 고치지 못하면 중국과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일본에 맞서 젊은이들이 강렬한 항의의 뜻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 소식이 전해진 17일 오후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베이징 시민 30여명이 “일본제국주의 타도”, “일본인은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중국 최대의 경제지 상하이에서도 시위가 발생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4월 상하이에서는 10만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으며, 일부 시위대의 투석 등으로 일본 총영사관이 훼손됐다. /상해=연합뉴스

미국은 17일(현지시간)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다시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한 데 따른 한·일, 한·중간 외교적 긴장 고조와 관련, 과거사 극복을 위한 노력과 당사국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미국은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 자체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모든 관련국들에 대화와 협상을 촉구하는 ‘중립적’ 입장을 견지했다.

선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무엇보다 우리는 역대 국가들이 협력, 대화를 통해 우호적으로 자신들의 우려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 ‘타미플루’ 특허권 논란

## <조류독감 치료제>

유일한 조류독감 치료제인 항(抗)바이러스제 ‘타미플루’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이 약의 제조사인 스위스 로슈가 특허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찰스 슈머 미 상원의원(민주, 뉴욕)은 17일 치명적인 조류독감이 확산될 경우, 충분한 공급 확보를 위해 다른 제약사들도 ‘타미플루’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슈머 의원은 성명을 통해 “문제는 약값이 아니라 공급부족인데, 이는 다른 제약사들도 생산할 수 있게되면 금방 개선될 것”이라면서 로슈는 타미플루에 대한 권리 포기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스 호게르차일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국장 대리로 조류독감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 美 의회 “다른 제약사들도 생산하게 해야”

## 스위스 로슈사 권리포기 제안 정면거부

제조사들은 약값을 낮추고 특허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 같은 의견은 WHO의 공식 견해는 아니지만 WHO 안팎에서 공감을 얻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전했다.

앞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도 스위스 제네바의 WHO 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부국은 물론 빈국들도 필요한 백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하고 제약회사들의 특허권이 빈국 지원에 장애가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타미플루’의 세계적인 제조,판매권을 갖고 있는 로슈는 이 같은 권리 포기 제안을 정면 거부했다. 대니얼 필라 로슈 대변인은 지난 14일 “로슈와 그 파트너들은 타미플루의 유일한 제조사이자, 생산량을 늘려야 할 필요도 있어도 가장 충분한 자격을 갖춘 회사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제네바·AFP·로이터=연합뉴스



중 492m 최고층빌딩 높이 492m로 중국 최고층빌딩이 될 상하이 월드 파이낸셜센터빌딩 모형도 앞에서 모리 미노루 리빌딩 사장겸 CEO, 유진 콘 엡데스 폭스 어소시에이츠 회장이 서 있다. /AP=연합뉴스

# 獨 메르켈 내각 구성 완료

## 기민-사민당 대연정 정책협력 협상 본격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예정자는 17일 새 연립정부의 내각 인사작업을 마무리했다.

지난 13일 사민당(SPD)이 8개 각료직 인선을 발표함에 이어 이날 기민당(CDU)-기사당(CSU)연합이 나머지 6개 각료를 지명함으로써 메르켈 정부의 조각 작업이 완료됐다.

메르켈 총리 예정자는 헬mut 콜 정부 시절 내무장관을 역임한 볼프강 쇼이블레 전 기민당 당수를 내무장관에 지명했다. 국방장관에는 볼란트 코흐(기민당) 해센주 주지사 보좌관인 프란츠 요제프 응이 지명됐다.

/베를린=연합뉴스

# 한국 이라크 지원물자 탈취 당해

## 지난 달 무장세력에 車 14대분 350만달러 어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이라크 물자지원 차량 14대가 현지 무장 세력에게 억류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지난 달 19일과 21일 KOICA 지원물자를 싣고 오르단 아카바항을 출발한 이라크 바그다드로 향하던 차량 8대와 6대가 각각 바그다드 서쪽 150km 지점인 아르-라마디에서 현지 무장세력에 의해 잇따라 억류됐다”

면서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랍된 우리나라 국민은 없다”고 18일 밝혔다.

사건 당시 차량 운전자인 이라크인 14명이 억류됐으나 곧바로 풀려났으며 동승했던 한국인은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물자 지원차량에는 군 경호요원 등이 전혀 동행하지 않았다.

차량에는 우리나라가 이라크내 18개 국립대학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350만달러 상당의 컴퓨터 및 인터넷 장비가 실려 있었으며 14대의 차량은 이라크 현지 운송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운송과 관련, 국내 업체가 용역을 수행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손해보험을 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지원물자를 회수하지 못할 경우 350만 달러를 날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주차에서 쇼핑까지 5분이면 OK!**

**광주아울렛**

**OPEN 2주년 축하 경품+사은 대잔치**

**경품대잔치**

- 울트라비 5인치 5만화 이상 구매시 100% 할인 혜택
- 울트라비 5인치 10만화 이상 구매시 20% 할인 혜택
- 울트라비 5인치 20만화 이상 구매시 30% 할인 혜택
- 울트라비 5인치 30만화 이상 구매시 40% 할인 혜택
- 울트라비 5인치 40만화 이상 구매시 50% 할인 혜택
- 울트라비 5인치 50만화 이상 구매시 60% 할인 혜택
- 울트라비 5인치 60만화 이상 구매시 70% 할인 혜택
- 울트라비 5인치 70만화 이상 구매시 80% 할인 혜택
- 울트라비 5인치 80만화 이상 구매시 90% 할인 혜택
- 울트라비 5인치 90만화 이상 구매시 100% 할인 혜택

**사은대잔치**

- 울트라비 5인치 5만화 이상 구매시 10% 할인 혜택
- 울트라비 5인치 10만화 이상 구매시 20% 할인 혜택
- 울트라비 5인치 20만화 이상 구매시 30% 할인 혜택
- 울트라비 5인치 30만화 이상 구매시 40% 할인 혜택
- 울트라비 5인치 40만화 이상 구매시 50% 할인 혜택
- 울트라비 5인치 50만화 이상 구매시 60% 할인 혜택
- 울트라비 5인치 60만화 이상 구매시 70% 할인 혜택
- 울트라비 5인치 70만화 이상 구매시 80% 할인 혜택
- 울트라비 5인치 80만화 이상 구매시 90% 할인 혜택
- 울트라비 5인치 90만화 이상 구매시 100% 할인 혜택

**광주아울렛**

**384-5100**

**www.gwangjuoutlet.com**

**공시최고**

사건번호 신청인	1)주소, 종류, 번호, 금액 2)발행일(지급일) 3)발행인(지급자)
2005카공 240 김영자	1)순천시 남정동 551-1 자기앞수표(라미7499599~608) 각금1,000,000원정(10매) 2)2005년 8월 29일 3)동광양농협중앙회
2005카공 241 박승덕	1)광양시 중동 1881 성호아파트 7-908 가계수표(사기706661049) 금700,000원정 2)2005년 4월 9일 3)국민은행 태안지점(광양지점)
2005카공 242 박현연	1)광양 하동군 화개면 삼산리 5 자기앞수표(무량액 17407247) 금5,000,000원정 2)2005. 9. 5 3)구례우체국
2005카공 243 주식회사 순천철강 대표이사 서경진	1)순천시 중동동 1261-6 담양수표(04060283) 미기재 2)1997년 9월 25일 3)(주)순천철강(하나은행 순천지점) 2)1)약속어음(04500374) 미기재 2)1997년 9월 25일 3)(주)순천철강(하나은행 순천지점)
2005카공 244 여수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신순만	1)여수시 학동 191-1 가계수표(마기1018775) 금5,000,000원정 2)미기재(2005년 8월 25일) 3)바우절(광주은행 동등지점)
2005카공 245 강인구	1)전남 보성군 화천면 화곡리 177 자기앞수표(87882726~87882731) 각금1,000,000원정(6매) 2)2005년 9월 3일 3)용치농협합동조합
2005카공 247 강현식	1)여수시 신기동 137 부영아파트 801-308 약속어음(04903729, 04903730) 미기재 2)미기재 3)강현식(국민은행 여천지점)
2005카공 248 김용화	1)의왕시 왕곡동 598 을곡아파트 103-1203 자기앞수표(28149054~86, 28149070, 28149072) 각금100,000원정(15매) 2)2005년 9월 2일 3)국민은행 연향지점
2005카공 249 이병기	1)전남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841-4 자기앞수표(나기064461341) 금1,000,000원정 2)2005년 9월 10일 3)보교농협합동조합 고상지소
2005카공 250 이규호	1)여수시 문수동 주공아파트 103-1515 송담장소:광양시 태안동 1654 대한통운(주) 한민빌 자기앞수표(04130619) 금1,000,000원정 2)2005년 8월 1일 3)순천 조계동우체국
2005카공 251 김병규	1)여수시덕동 37-556 자기앞수표(가다57374804, 가다57374805, 가다57374806, 가다57374808, 가다57374809) 각금100,000원정(5매) 자기앞수표(라기88395137) 금1,000,000원정 2)2005년 1월 26일 3)여수수산협동조합 서부지점
2005카공 252 최영미	1)순천시 재전동 성진아파트 102-208 자기앞수표(라미76769105) 금1,000,000원정 2)2005년 9월 5일 3)농협중앙회 동순천지점
2005카공 253 손구	1)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리리 서계보성1차 103-1809 약속어음(자기18030462) 금1,200,000원정 2)2005. 7. 1(2005. 10. 1) 3)현현식(조흥은행 여수지점)

사건번호 신청인	1)주소, 종류, 번호, 금액 2)발행일(지급일) 3)발행인(지급자)
2005카공 254 주식회사 순천철강 대표이사 최승환	1)경기도 광주시 지동 58 약속어음(자기03960636) 금1,177,000원정 2)2005년 5월 31일(2005. 9. 2) 3)성창기공 주식회사(하나은행 순천지점)
2005카공 255 김순철	1)전남 고흥군 포두면 남성리 359 자기앞수표(라미20715987) 금1,000,000원정 2)2005년 9월 16일 3)광양농협합동조합
2005카공 256 신순진	1)여수시 덕동동 1797 귀인리파크 903호 자기앞수표(라기75646186, 라기75646187) 각금1,000,000원정(2매) 2)2005년 9월 12일 3)여수축산업협동조합 문수동지점
2005카공 257 허유자	1)순천시 서면 지분리 62 자기앞수표(라미62201348) 금1,000,000원정 2)2005년 9월 20일 3)농협중앙회 순천지점
2005카공 258 권민수	1)순천시 연향동 동부아파트 108-801 자기앞수표(28146914~28146923) 각금100,000원정(10매) 2)2005년 9월 14일 3)국민은행 연향지점
2005카공 259 정수상	1)전남 고흥군 대서면 남정리 290-1 자기앞수표(가미07612630~3) 각금100,000원정(4매) 2)2005년 8월 29일 3)광양농협 대서지점
2005카공 260 윤완서	1)광주 서구 금호동 호반리랜시빌 203-304 자기앞수표(가미83572232~4) 각금100,000원정(3매) 2)2005년 3월 29일 3)동광양농협합동조합
2005카공 262 유영준	1)인천 연수구 역연동 267-3 송담장소:여수시 풍산동 282-4 자기앞수표(가미07504818~07504827) 각금100,000원정(10매) 2)2005년 9월 13일 3)여수농협합동조합
2005카공 263 정양호	1)순천시 가곡동 987-18 자기앞수표(가미19111821, 가미19111822, 가미19111823, 가미19111824, 가미19111825) 각금100,000원정(4매) 2)2005. 9. 2. 3)광양농협합동조합 서부지점
2005카공 264 장은자	1)순천시 조계동 금담아파트 102-903 송담장소:순천시 중앙동 108-4 오달제이타워점 약속어음(자기23405144~23405150) 백지(7매) 2)백지(백지) 3)장은자(흥수기업은행 순천지점)
2005카공 265 정동일	1)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475-9 자기앞수표(94656863, 94656864, 94656865, 94656866, 94656867) 각금100,000원정(5매) 2)2005. 9. 23 3)광양농협 인서지점

상기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공시최고기일인 2006. 1. 18. 14: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민일 이를 게을리하면 권리를 상실하여 증서의 무효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2005년 10월 1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권기만**